



보도시점 2024. 12. 10.(화요일) 배포 2024. 12. 10.(화요일)

소설가 구효서와 함께하는 '2024 재외동포 문학상' 시상식

- 재외동포청, 12월11일 인천 송도서 온·오프라인 개최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오는 12월 11일(수)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온·오프라인으로 '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' 시상식을 개최한다.
 - 올해 시상식에서는 시, 단편소설, 수필·수기 3개 부문의 대상 수상자(장혜영, 조성국, 이명란)를 비롯한 우수상 등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.
 - 수필·수기 부문 우수상 수상자인 이지영(요르단) 작가는 시상식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직접 상장을 받을 예정이다.
- '재외동포 문학상'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, 한민족 정체성을 담은 우수한 문학작품을 발굴·소개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.
 - 올해로 26회째인 이 상은 수많은 재외동포 문학인의 도전과 열정 속에서 한국 문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, 수상자 다수는 국내 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다.
 - 금년에는 제22회 수상자 반수연 작가가 '김승옥 문학상' 우수상을 받았고, 제24회 대상 수상자인 이수정 작가는 '고창 신재효 문학상'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.

- 시상식 후에는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구효서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.
- 구효서 작가는 깊이 있는 문학적 통찰과 따뜻한 인간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.
- 강연에서는 올해 문학상 심사 과정과 후보작들에 대한 평가, 재외 동포 문학의 중요성, 세계 속의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.
- 시상식과 초청 강연은 관심있는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추후 동포청 유튜브(youtube.com/@OKAKOREA)에 게시할 계획이다.
- 이상덕 청장은 “‘재외동포 문학상’은 서로 떨어져 있는 재외동포 모두의 삶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왔으며, 동포 작가들의 노고 덕분에 한국 문학의 지평이 보다 넓어지고, 우리 문화의 위상 또한 높아질 수 있었다.”고 했다.
- 이어 “수상자 여러분들의 작품 활동이 향후 국내외 문단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, 재외동포청도 ‘재외동포 문학상’의 인지도와 위상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붙임: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품집 『2024 재외동포 문학의 창』 표지 1부. 끝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서기관	이명재	032-585-3207
	동포교육문화지원과	담당자	주무관	김은혜	032-585-3212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붙임

『2024 재외동포 문학의 창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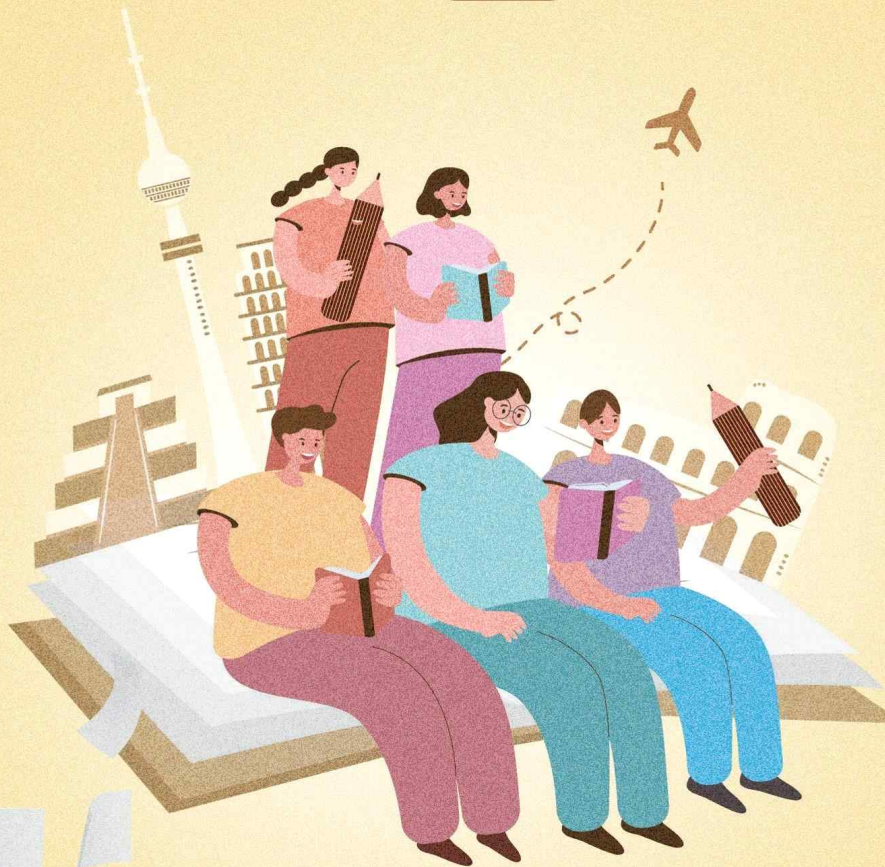
발 간 등 록 번 호

11-1832000-000004-01

제26회

재외동포문학상
수상작품집

2024 재외동포 문학의 창



시 부분 대상 • 장혜영
단편소설 부분 대상 • 조성국
수필·수기 부분 대상 • 이명란



재외동포청
Overseas Koreans Agency